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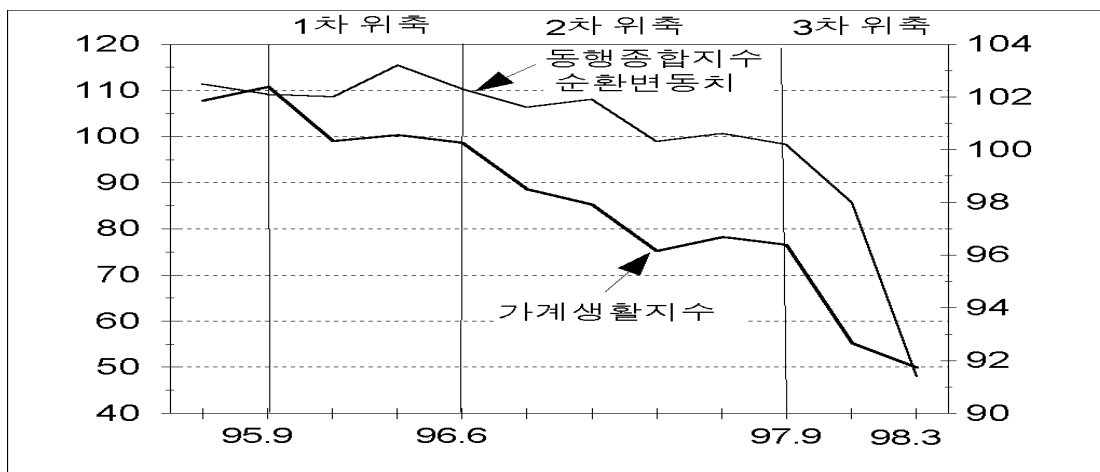
2 HRI 가계생활지수의 체감경기 진단

- 95년 6월 이후 분기별로 실시해 온 가계생활지수 조사에 따르면 체감 경기는 95년 3/4분기부터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이후 반도체가격 폭락, 외환위기 등의 돌발적 악재로 현재까지 하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 98년 3월 가계생활지수는 95년 6월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추가적인 경기 악화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지속적 경제 여건 악화로 가계 체감경기는 장기 침체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 가계생활지수는 경기종합지수에 비해 정점 통과 및 하강 국면 본격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

- 가계생활지수는 95년 9월 조사에서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현재까지 이미 10분기(2년 6개월) 동안 경기 하강 국면이 계속되고 있음
-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96년 1/4분기까지 고원형의 정점을 지속한 것에 비해 가계 체감 경기는 이보다 2분기 가량 빠른 시점에서 하강 국면 진입
-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년 초에 본격적인 하강국면으로 진입한 반면, 가계 생활지수의 경우 이미 96년 6월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가계의 체감 경기가 국가 전체 경기보다 빠르게 위축되어 왔음을 의미

< 가계생활지수와 경기종합지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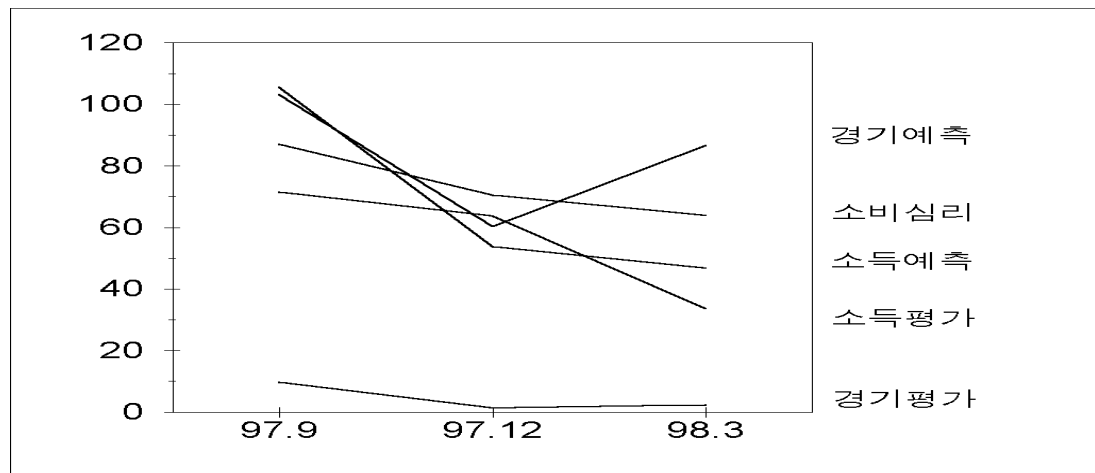
주 : 98년 3월의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년 2월 자료로 대체

○ (국면별 특징) 가계 체감 경기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로 크게 하락하지 않았으나 반도체 가격 폭락, 외환 위기 등의 악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3단계에 걸친 하강 국면 지속

- (1차 위축 : 연착륙 기대 국면) 95년 9월 이후 체감 경기의 위축 국면 시작

- (기간) 95년 4/4분기~96년 2/4분기
 -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로 가계의 체감 경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가계생활 지수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
 - (2차 위축 : 불황 진입 국면) 96년 3/4분기부터 본격적인 하락세
 - (기간) 96년 3/4분기~97년 3/4분기
 - (체감 경기) 반도체 가격 폭락, 경상수지 적자의 급증 등으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가계생활지수는 본격적인 하강 국면으로 진입
 - 96년 말 노동법 사태와 97년 연초의 한보부도 등으로 가계생활지수의 하락세는 97년 1/4분기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횡보함
 - (3차 위축 : 위기 국면) 98년 3월 가계생활지수 조사이래 최저치 기록
 - (기간) 97년 4/4분기~
 - (체감 경기) 외환 위기의 여파로 가계생활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98년 3월에는 조사이래 최저치 기록
- (98년 3월 조사의 특징) 98년 3월 조사 결과 경기, 소득, 소비와 관련된 대부분의 세부지수들이 97년 12월보다 악화되었으나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 1년전과 현재의 경기 상태를 비교하는 경기평가지수는 2.4로 나타나 97년 12월의 1.3에 이어 극히 저조한 수준 지속
 - 반면, 1년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예측지수의 경우, 97년 12월 이후 국가 경제의 위기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따라 60.2에서 86.6으로 상승

< 세부지수들의 최근 추이 >



- (소득) 구조조정의 진행에 따른 임금 삭감, 감원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
 - 1년전 대비 현재의 소득을 평가하는 소득평가지수와 1년후의 소득 변화를 예측하는 소득예측지수는 각각 63.7, 58.8에서 33.5, 46.7로 크게 하락
 - (소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악화와 가계 소득의 감소 등 가계의 경제 여건 악화를 반영하여 소비심리지수는 70.5에서 63.8로 하락
 - 97년 4/4분기부터 급격히 위축된 가계의 체감 경기는 가계 경제 여건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장기간 침체 국면을 보일 전망
 - (가계의 체감 경기 불황 지속 전망) 경제 위기 심화에 대한 불안감 완화에도 불구하고, 임금 하락, 고용 불안 등 가계의 경제 여건이 계속 악화되면서 가계의 체감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내수 불황 장기화) 가계 체감 경기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내수 시장의 조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체감 경기의 추가적 하락 가능성) 특히,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할 경우 불황 심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가계생활지수는 재차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 중요) 가계 체감 경기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실업대책 등 가계의 직접적인 경제 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에 대한 분명한 비전의 제시를 통해 국민적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이 태 열 tylee@hri.co.kr ☎724-4012, 민 주 흥 jhmin@hri.co.kr ☎724-4014)

< HRI 가계생활지수 개요 >

조사 대상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기혼자 약 1,000명 (98년 3월: 992명)
조사 방법	무작위 추출에 의한 전화 설문
조사 목적	일반 가계가 느끼는 경기, 소득, 소비에 대한 체감 정보 및 향후 예측을 조사
조사 시기	98년 3월 11~12일 (95년 6월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실시)
지수 산출	긍정적인 응답에 2, 중립에 1, 부정에 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한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 (지수값이 100을 넘으면 긍정적인 평가, 100 이하이면 부정적인 평가)
지수 구성	가계생활지수 - 경기, 소득, 소비의 평가와 예측과 관련한 모든 세부 지수들의 가중 평균 (종합적인 체감 경기를 의미) 가계기대지수 - 세부 지수 중 미래에 대한 예측과 관련한 세부 지수들의 가중 평균 (향후 기대를 반영) 소비심리지수 - 세부 지수 중 소비와 관련 세부 지수들의 가중 평균